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27호

**체육시민연대 논평**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당장 멈추라!**

**도쿄올림픽과 스포츠 인권**

**스포츠 보도에 '느슨한 저널리즘' 이제는 NO!**

정민경 미디어오늘 기자

**“안산 선수 금메달 박탈해야... ‘페미’니까” 어이없는 집단 테러 논란**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개인 SNS까지 주목받는 스포츠 스타들**

동효정 스포츠서울 기자

### 『K-Sports & Covid19』

삼성화재, 방역수칙 위반 선수 연봉 전액 삭감  
“먹고 살기도 어려워”...코로나에 올림픽 열기 시들  
코로나 여파 ‘ANOC 서울 총회’ 무산...아테네로 변경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당장 멈추라!

2020 TOKYO 올림픽대회의 표어는 "United by Emotion"(감동으로 하나가 된다)이다. 이는 올림픽이 인종, 성별, 성적 취향, 언어, 종교, 정치색 등과 관계없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개막에 앞서 여성 참여 비율이 48.8%(최종 발표는 48.5%)라면서 대회 사상 첫 번째 '성평등올림픽'이 될 거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이런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발생했다.

체육시민연대는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산 선수에 대한 외모 평가와 더불어페미니스트라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현실에 대해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안산 선수가 노력하며 흘린 땀으로 정당하게 그 실력을 인정받아 획득한 "금메달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 언론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안산 선수는 언론의 여러 보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활을 쏘며 전인미답의 3관왕을 달성했다. 그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힘이 넘쳤으며 충분히 박수를 받아야 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와 '차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기존의 차별을 재확인하고 강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에 바탕을 둔 배제와 억압의 사회구조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또한, 올림픽헌장 제4조는 '스포츠가 곧 인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차별'이나 '혐오'도 없어야 한다. 체육시민연대는 안산 선수를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하며 모든 선수는 그 어떤 '혐오'나 '차별'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방임·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인권이 발현되고 옹호되어야 한다.

코로나 상황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선수들은 힘들게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역시 이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집단적 폭력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양궁협회도 비인권적 행위를 하는 일부의 집단적 폭력 행위로부터 즉각 대응과 강력한 보호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2021.08.02.

체육시민연대

## 스포츠 보도에

# ‘느슨한 저널리즘’ 이제는 NO!

2020 도쿄 올림픽 보도들에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며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도쿄 올림픽 보도 논란은 올림픽 개최식날(7월23일) 우크라이나, 아이티, 엘살바도르 국가에 부적절한 소개 사진을 쓴 MBC가 질타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5일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와의 축구 경기에서 루마니아 수비수가 자책골을 넣자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이라는 자막을 쓰기도 했다.

26일 박성제 MBC 사장의 사과 이후에도 같은 날 유도 남자 73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재일동포 3세인 유도 대표팀 안창림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자 MBC 캐스터는 “우리가 원했던 색깔의 메달은 아닙니다만”이라고 말했다.

그 외 한국일보, 뉴스1,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등 일부 언론은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자 ‘노골드’, ‘수모’, ‘자존심 구겼다’, ‘망신 뻘쳤다’, ‘대망신’, ‘수모를 당했다’는 표현들을 쓰면서 태권도 경기 소식을 전했다.

여성 선수들을 두고 ‘태극 남자’, ‘얼음공주’, ‘여우같다’는 표현 때문에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성 선수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혐오 발언이 나오는 상황을 그대로 전한 언론에 질책이 뒤따랐다.

도쿄 올림픽 중계 발언과 보도에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건 그만큼 시청자 수준이 높아졌으며 중계와 보도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비판 잦아도 △타국에 대한 무존중 △승부주의적 태도 △젠더 감수성 부재 등 다양했다.

통상 스포츠와 연예는 다른 보도 분야보다 저널리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유력 매체그룹들은 ‘스포츠 OO’이라는 계열사 이름으로 스포츠와 연예 기사를 노출하며 더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스포츠 OO’이라는 공간은 마치 ‘OO닷컴’의 또 다른 이름처럼 모회사 매체명으로는 쉽게 올리지 못하는 어뷰징 기사나 자극적 보도를 게재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돼 왔다.

스포츠 기사를 즐기는 독자층 기호에 맞춰 위트있는 제목을 뽑아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게 편집하거나 노출이 많은 여성들의 사진도 많이 송고되는 관행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중계는 저널리즘보다 예능의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다음 장 계속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30일 ‘올림픽과 미디어’라는 글에서 MBC 올림픽 중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상적으로 방송을 예능적 감각으로 접근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예능적 감각은 재미를 우선으로 하고, 재미있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차별적 혐오적 요소를 가미해 보는 이에게 억지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방송, 미디어가 고정관념을 확산하고 아무리 케이블 등 새로운 플랫폼과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다지만 예능으로 모든 것을 ‘퉁’치려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짚었다.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원래 기자에 대한, 저널리즘에 대한 평판이 바닥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스포츠나 연예 분야는 더했다”며 “스포츠 연예지에서 가십성 기사는 가장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태생적으로도 자극적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스포츠 연예지 보도 기준이 다른 영역 기준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독자가 언론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연예 매체라고 해서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사망이나 자살 보도의 경우 스포츠 연예 매체라고 해도 신중하게 보도하는 곳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독자들은 어떤 영역 기사라도 문제적 내용에는 세계 이야기하고 항의한다. 또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저널리즘 윤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지적을 더 귀담아듣고 기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스포츠 중계 보도에 근본적 성찰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스포츠나 연예 분야 보도의 경우 다소 상업적이어도 용인하는 부분이 있는 등 느슨한 인식이 있었다”며 “스포츠 보도 분야에는 기존 저널리즘 교육을 받은 기자나 PD뿐 아니라 전문성을 위해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또 스포츠 매체가 온라인 위주로 활성화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 등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존 저널리즘 규범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높은 의식을 언론이 못 따라가면서 이번 올림픽 중계에서 방송사고가 잇따랐다”며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이나 성평등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방송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모든 영역에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했다.

# “안산 선수 금메달 박탈해야... ‘페미’니까” 어이없는 집단 테러 논란

한경닷컴 2021.07.29  
김소연 기자

**"안산 선수는 금메달 박탈해야 하지 않나요? 페미니스트니까"**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에 도전하는 안산 선수에게 도를 넘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몇몇 네티즌들은 한국양궁협회에 전화를 걸고, 자유게시판에 안산 선수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면서 '국가대표를 향한 테러로부터 안산 선수를 지켜달라'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안산 선수를 지켜야 한다는 이들은 "선수를 사과하게 하지 말고, 절대 반응해주지 말고, 도를 넘은 비난에 강경하게 선수를 보호해 달라"고 양궁 협회에 요청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양측의 설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안산 선수에 대한 비난의 시작은 국가대표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면서였다. 안산 선수 양궁 조끼에 세월호 추모 배지가 있었는데, 이를 보고 일부 극우 남초 사이트에서 공격을 시작한 것.

여기에 안산 선수가 숏컷 헤어스타일이라는 점, 광주여대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들어 "안산은 페미(니스트)냐"는 반응과 함께 기이한 양상이 나오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아직 개인전 경기를 앞둔 선수의 SNS를 찾아 욕설과 비아냥이 담긴 댓글을 달거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는가 하면 과거 '오조오억', '웅앵웅'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남혐을 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안산 선수도 SNS 프로필에 "DM은 확인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여기에 안산 선수가 숏컷 헤어스타일이라는 점, 광주여대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들어 "안산은 페미(니스트)냐"는 반응과 함께 기이한 양상이 나오게 됐다.

뿐만 아니라 아직 개인전 경기를 앞둔 선수의 SNS를 찾아 욕설과 비아냥이 담긴 댓글을 달거나,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는가 하면 과거 '오조오억', '웅앵웅'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남혐을 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안산 선수도 SNS 프로필에 "DM은 확인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이들 커뮤니티 내에서도 해당 단어들은 오래전부터 사용됐지만, 최근 여성들이 많이 쓴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니까 '남혐'"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 해당 커뮤니티에는 "금메달을 박탈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글이 게재됐고, 해당 글에는 "금메달은 땀지만 광고는 날리지 않겠냐", "(세금으로 주는) 연금은 아깝다" 등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하지만 '웅앵웅', '오조오억'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안산 선수와 관련된 비난에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칼럼리스트 위근우는 자신의 SNS에 해당 논란을 전하면서 "양궁협회가 \*\* 성차별주의자들에게 사과하지 말라는 요청에서 끝내면 안 된다"며 "그동안 \*\*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힘을 실어주면서 애들의 자의식을 살피워준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든 세상을 보라'고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혐오 정서라도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목소리는 공론장에서 귀 기울이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안일한 소리 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한 배려와 소통의 제스처를 재들이 계속해서 작은 승리의 경험으로 삼아왔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래서 지금 올림픽 영웅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여성혐오 테러 중인 것"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과거 '남혐' 논란으로 사과했던 기업과 기관들을 언급하면서 "답해줘선 안 될 일에 답하고, 사과한 탓에 뭐가 됐든 자기네 말을 들어줄 거란 효능감에 취한 혐오주의자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 머리가 째다는 이유 하나로 오직 올림픽에서 잘한 죄밖에 없는 국가대표 선수가 테러를 당하는 건 이유가 있어 보이나"고 덧붙였다.

# [2020도쿄] 개인 SNS까지 주목받는 스포츠 스타들

2020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수들의 SNS까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대한양궁협회 자유게시판에는 “안산 선수를 보호해주세요”, “선수를 향한 악성 루머 및 사이버불링에 대한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요청합니다”, “안산 선수에 대한 악플들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의 글이 게재됐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 안산(20·광주여대)이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남성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자 대한양궁협회에 선수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금메달을 반납하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 안산이 개인 SNS에서 “‘웅앵웅’ 과제하기 싫다” “오다 안 본지 ‘오조오억년’”, “얼레벌레” 등의 단어를 썼던 점을 거론하며 안산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쓰는 한국 남성 비하 표현이라며 안산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는 논리다. 일부 네티즌들은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를 두고 ‘여대에 쇼트컷, 페미니스트 조건을 다 갖췄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을 적었다.

양궁협회 관계자는 “큰 경기를 앞둔 안산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첫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선수도 미국 기업 나이키의 신발 사진을 과거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비난 세례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여자 공기소총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중국의 사격 선수 양첸은 이날 축하와 환호 대신 웨이보를 통해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이키의 제품 사진을 중국 국가대표가 SNS에 버젓이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나이키는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중국 신장 지역의 면화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에선 나이키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펜싱 준결승전 도중 상대인 김정환(38·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독일의 막스 하르통 선수의 SNS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28일 일본 지바의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전 세 번째 라운드에서 하르통이 경기 상대인 김정환이 넘어지자 그 모습을 따라하며 상대를 조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팬들은 하르통의 SNS에 악플을 남겼다. 비신사적 경기 운영이라는 비판과 ‘히틀러’, ‘나치’ 등의 글을 게재했다.

하르통 선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림픽 챔피언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됐던 행위에 대해 “심판에게 김정환이 터치 후 넘어지는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어필하던 것이었다”라며 “조롱하거나 놀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 [스토리 발리볼]

# 삼성화재, 방역수칙 위반 선수 연봉 전액 삭감

방역수칙을 위반한 저녁식사 한 번의 대가는 가혹했다.

삼성화재는 29일 선수단 18명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선수에게 구단 자체징계를 결정했다. 2021~2022시즌 V리그 3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연봉 전액 삭감이라는 초강력 징계다.

27일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의 징계에 이은 구단의 추가징계로 해당 선수는 8월 의정부 KOVO컵은 물론 2021~2022시즌 V리그 전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한 시즌 연봉 전액 삭감은 국내프로스포츠 사상 유례가 없는 징계다. 이런 결정이 나온 내부사정도 있겠지만, 만약 선수가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징계다. 그만큼 구단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KB손해보험도 26일 KOVO의 징계와 별개로 10경기 출장정지 및 5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선수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연봉 1억 원 삭감을 결정했다.

삼성화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집단감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방지를 위해, KOVO 상벌위 징계와 별도로 해당 선수에게 구단 자체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엄중한 감염병 확산 분위기 속에서 구단 소속선수의 일탈로 배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구단이 내린 추가징계가 강력해서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KOVO 상벌위가 결정한 500만 원의 제재금도 역대 최고액이다. 그만큼 상벌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새 시즌을 앞두고 다른 구단과 선수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바람에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도 V리그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는 강력해 보인다. V리그와 KOVO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분명 효과가 크겠지만, 선수들이 인권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mailto:marco@donga.com)

# “먹고 살기도 어려워”... 코로나에 올림픽 열기 시들

"지난번 월드컵 때는 치킨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서 식구들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이번 올림픽에는 그런 것도 없네요. 사람들 관심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2020 하계 도쿄올림픽이 지난 23일 개막했지만, 예전과 같은 축제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와 피로감 속에서 연기를 거듭하다 개최된 '팬데믹 올림픽'에 시민들의 관심도 시들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올림픽 특수 실종...코로나 생활고에 관심 '뚝'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52)씨는 올림픽 축구대표팀 경기가 열린 지난 22일에 맞춰 평소보다 발주량을 늘렸다. 밀려드는 주문에 대비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일일 아르바이트'도 요청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날 주문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씨는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너무 주문이 안 들어와서, 혹시 배달 앱에 영업 중이 아니라고 잘못 표시된 것이 아닌지 확인까지 했다"며 "아무래도 이번 올림픽 장사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들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 올림픽이라는 축제에 관심을 쏟기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은평구에 사는 대학원생 정모(32)씨는 "다들 눈앞에 있는 코로나19나 사회적 거리두기,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올림픽에 관심을 못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에 사는 이모(63)씨도 "코로나19로 심란해서 올림픽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며 "확진자 수나 백신 접종 소식 외에 다른 뉴스는 눈길도 안 가는데, 올림픽이라고 다르겠나"라고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올림픽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모이게 만들고, 이벤트에 참여시키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니 축제 분위기도 살지 않고, 관심도 저하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지구촌 체육행사보다 방역 논란이 더 이슈

회사원 이모(45)씨는 최근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면서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틀었다가 우연히 올림픽 개막식을 보게 됐다.

과거에는 개막식을 보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미리 파악해두던 그였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은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다음 장 계속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1년 연기되고, 막판까지 개최 여부와 시기 등이 불투명했던 점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올림픽 개최 전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우리 선수들의 준비 상황이나 개최국의 들뜬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데다 막판까지 일본이 개최를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축제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 진모(28)씨 역시 "막판까지 대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계속 말이 바뀌면서 지연되다 보니 관심도 자연스럽게 식은 것 같다"며 "원래 행사라는 게 예고편이 길어지면 본편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 경기보다 방역 논란이 더 이슈가 되는 게 피로감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북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6)씨는 "올림픽 개막식이나 경기는 안 봤는데, 후쿠시마산 식품을 안 먹기 위해 한국 대표팀이 도시락을 따로 싸는 것을 두고 일본에서 반발했다는 뉴스는 봤다"며 "방역 관련 논란이 있는 내용만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호창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지구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일본은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올림픽 개최에 반발이 있었던 자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도 못했고, 독도 표기나 후쿠시마산 식자재 등을 둘러싼 논란 등도 경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 "같이 봐야 신나는데"...모임 금지에 응원전도 불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같이 보는 맛'이 사라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평소 큰 스포츠 행사 때면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술집에서 '단체 응원전'이 벌어지던 모습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 오모(25)씨는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동아리 회원 열댓 명씩 맥줏집에 모여서 축구를 보는 게 전통이었는데, 사적모임 금지 조치 때문에 불가능해졌다"며 "학교 주변에서 축구 중계를 해주던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안 열거나 폐업했다"고 말했다.

회사원 기모(25)씨는 "올림픽 때는 친구·가족과 모여서 치킨 먹는 재미로 봤는데 그 재미가 사라져서 안 보게 되는 것 같다"며 "코로나 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스포츠 경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trauma@yna.co.kr](mailto:trauma@yna.co.kr)

# 코로나 여파

## ‘ANOC 서울 총회’ 무산... 아테네로 변경



오는 10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가 무산됐다.

ANOC는 지난 28일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서울 대신 그리스 아테네에서 오는 10월 24~25일 총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ANOC는 한국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과 변종 바이러스 확산 등을 이유로 개최 장소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락하는 나라가 줄어든 것도 서울 총회가 취소된 이유로 꼽힌다.

ANOC 총회는 해마다 전 세계 206개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가 참석하는 이벤트로 각 NOC의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 주요 인사와 교류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국제 스포츠 행사 중 하나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25차 총회를 오는 10월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했다. 1986년(5차)과 2006년(15차)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난해 총회를 1년 연기했고 이번에는 개최권을 아테네에 내줬다.

체육회 관계자는 “ANOC가 한국의 엄격한 방역 기준 탓에 서울에서 총회를 열기 어렵다는 뜻을 알려왔다”며 “ANOC와 접촉해 내년에 다시 서울에서 총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간 스포츠 소식

[터치! 코리아] 스포츠엔 '불로소득'이 없다

[https://www.chosun.com/opinion/touch\\_korea/2021/07/31/DAM42TOFDFEPPGTNKLAU2PPUB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opinion/touch_korea/2021/07/31/DAM42TOFDFEPPGTNKLAU2PPUB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KPGA노조, 2일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 파업 돌입 "비상식적 경영진 실책 인정하라"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8020100013990000809&servicedate=20210802>

"창문도 못 열게 하는 올림픽 감옥"...확진·격리된 선수들 불만 폭발

<https://news.imaeil.com/International/2021080213360800883>

도쿄올림픽은 최초의 성평등 올림픽? 아직 한참 멀었다 [엠스플 이슈]

[https://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770399\\_000#07D0](https://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770399_000#07D0)

소수자 품은 도쿄올림픽... 전문가, "스포츠 내 자성의 시간 필요"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17000](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117000)

인권위,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 연수 개최

<https://www.fnnews.com/news/202108021135453372>

인권침해-비리 인식 바꾸기..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스포터즈 발대식

<http://osen.mt.co.kr/article/G1111627777>

[논평] MBC가 망친 축제의 시작, 예의는 스포츠의 기본이다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71>

"부끄러움은 국민 몫" 해외도 놀란 '숏컷 페미' 논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210572988467>

대구 2021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인권 연수 실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233>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